

Hong-Ti Art Center ANNUAL REPORT 2018

홍티아트센터 2018 연차보고서

홍 티 다 이 어 리



6

공정공부
5.15m x 17m

100-1001 & 1002 / 1003
1004 & 1005 & 1006
1007 & 1008 / 1009

홍티아트센터
HONG-TI
ART CENTER

부산광역시
BUSAN METRO CITY

시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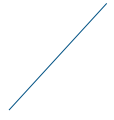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E FOUNDATION

홍익아트센터
인사말

GREETING

006

007



홍티아트센터가 벌써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51명의 입주작가들이 홍티에 머물렀고 36번의 전시를 열었습니다.

또 다섯 해가 지난 만큼 지역커뮤니티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야외 공원인 홍티 둔병에는 매일 무지개공단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낮잠을 자거나 산책을 할 수 있는 친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홍티 내부의 공간은 점심시간마다 배드민턴과 탁구를 치는 소리로 분주합니다. 더불어 전시실 옆 한쪽 벽면에는 머물렀던 작가들이 남기고 간 작품으로 이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지나간 5년만큼 앞으로의 5년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홍티아트센터의 앞으로는 아름다운 다대포가 뒤로는 포근한 아미산이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처럼 입주 작가들에게는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되고 지역주민에게는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는 바다가 되는 것이 홍티아트센터의 역할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믿습니다.

내년도 올해만큼, 작가와 지역 주민과 더불어 소통하며 한발 한발 나아가는 홍티아트센터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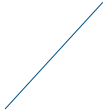
홍티아트센터
연차보고서 2018

CONTENTS

008

009





010	About 홍티아트센터
011	소개
014	월별 행사내역
016	레지던시 프로그램
018	입주예술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020	입주작가 릴레이전시 “제로아워”
024	비평 프로그램
026	아트부산 특별전 “아트악센트”
028	오픈스튜디오 “복닥복닥”
034	오픈강의
036	교류 사업
037	국내
037	홍티아트센터 &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시 교류프로그램
039	홍티아트센터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교류전 “백”
040	부산·울산·경남 통합 전시 “Neo Localism”
041	국외
041	발틱현대미술관
044	큐슈예문관
046	피어-2
048	커뮤니티 사업
050	홍티예풍
062	홍티예술산책
064	공간활성화
068	홍커밍데이
072	맺으며
073	옥인컬렉티브와 대화 中
075	6기 입주예술가 후기
076	홍티 일상

홍티공간
Hong-ti Art Center

ABOUT HONG-TI

010

011

A
b
o
u
t
홍
티
아
트
센
터

49489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106번길 6
6, Dasan-ro 106beon-gil, Saha-gu, Busan, 49489 Republic of Korea
Tel. 051-263-8661~3 Fax. 051-263-8660 www.bscf.or.kr
Facebook.com/hongtiartcenter Instagram@hongtiartcenter



홍티아트센터 소개

홍티아트센터는 사하구 무지개 공단 내 옛 홍티포구에 조성된 창작공간입니다. 홍티아트센터는 설치미술 중심의 레지던시 운영 기관으로서 국내외 작가들에게 창작 및 전시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창작공간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전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연계사업으로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사하구 5

(괴정역 6번출구 - 금강공업·홍티아트센터 하차)
(다대포해수욕장 1번 출구 - 금강공업·홍티아트센터 하차)

마을버스 사하구 3-1

(신평역 3번출구 - 금강공업·홍티아트센터 하차)
(다대포해수욕장 1번 출구 - 금강공업·홍티아트센터 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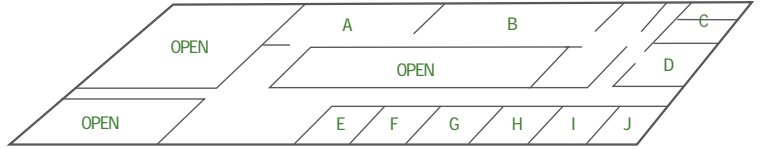
홍티공간
Hong-ti Art Center

SPACE

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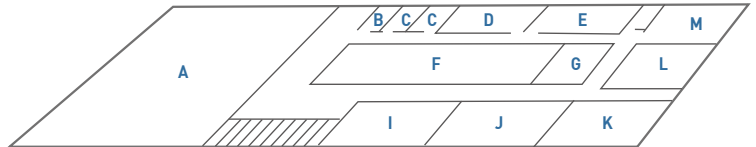
013





2F

- A 세미나실 B 휴게정원 C 화장실 D 커뮤니티홀 E 작가연구실-1
 F 작가연구실-2 G 작가연구실-3 H 작가연구실-4 I 작가연구실-5
 J 작가연구실-6



1F

- A 전시실 B 관리실 C 화장실 D 사무실 E 회의실 F 공동작업장
 G 그늘정원 H 옥외정원 I 스튜디오-1 J 스튜디오-2
 K 스튜디오-3 L 스튜디오-4 M 스튜디오-5



홍티공간
Hong-ti Art Center
월별행사

MONTHLY EVENTS

014

015



월별행사

1월~3월	● — 해외창작공간교류_큐슈예문관
1월~4월	● — 해외창작공간교류_발틱현대미술센터
4월	● — 아트부산 특별전_아트악센트
4월~6월	● — 홍티예품 상반기_지금, 여기, 우리
5월~10월	● — 입주예술가 릴레이전시_제로아워
6월~10월	● — 비평 프로그램
7월	● — 홍티아트센터 X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시1
7월~12월	● — 해외창작공간교류_피어-2
8월~9월	● — 홍티예품 하반기1_한 땀 한 땀
9월	● — 홍티아트센터 X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시2
10월~11월	● — 홍티예품 하반기2_위대한 낙서_몸과 정신에 집중하기
11월	● — 홍티아트센터 X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교류전_백 오픈스튜디오_복닥복닥
12월	● — 부·울·경 통합전_NEO LOCALISM 홍커밍데이

Hong-ti Art Center
레지던시 소개

RESIDENCY
INTRODUCTION

016

017

홍티아트센터 레지던시 소개

레지던시는 “거주”라는 뜻으로 작가들이 홍티의 공간에 머무르며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며 프로그램입니다.

홍티아트센터는 설치미술을 기반으로 시각적인 예술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 뜻을 함께 만들 작가들을 매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티아트센터는 입주한 작가들에게는 창작 및 거주공간뿐만 아니라 멘토링, 전시, 워크샵 등 다양한 창작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입주안내

입주절차

모집공고 - 모집설명회 - 모집마감 - 1차 서류심사 - 2차 인터뷰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 최종발표 - 입주

입주안내

입주기간	국내작가 : 단기 5개월(2월~6월, 7월~11월)/ 장기 10개월(2월~11월) 외국작가 : 입주기간(단기 3개월 미만)
모집대상	설치, 미디어 등의 시각예술을 위주로 작업하는 예술가
모집인원	8명 내외
접수기간	매년 11월 중 접수
문의	TEL : 051,263,8661~3, FAX : 051,263,8660

입주조건

홍티아트센터의 운영규정 준수
개인 사용 이용료 부담은 3.3㎡당 월 5,500원을 관리비로 납부
홍티아트센터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행사에 반드시 참여
활동 일수 : 매월 15일 이상 공간 활용 의무
예술가 창작활동 시행

공간 및 기자재 지원

개별 창작공간(스튜디오) 지원
공동 창작공간 지원(세미나실, 공동 작업실, 커뮤니티 홀)
입주기간 내 전시 및 활동 계획서(내부 협의)를 통한 전시 공간 지원
기자재 등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입주 예술가 홍보 및 전문가(기획자, 평론가 등) 초청 세미나 개최
1:1 매칭 비평가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전시공간 지원
입주 예술가 오픈 스튜디오
국내 외 레지던시 공간 및 인적 네트워크 교류 프로그램
창작 지원금 일부 지원(작업의 규모에 따라 창작 지원금 지원)

About Artists Residency

Apply

Open call - Application submission – 1st Document review – 2nd Interview and presentation – Result announcement

Outline

Residency period	1~3 months
Eligibility	Artists engaged in Visual arts including installation, media, painting, photograph and photograph
Selection	About 8 artists
When to apply	Every November
Contact	TEL : +82-51-263 8661~3

Rules & Regulations

Comply with the regulations for safety rules

Pay utilities (per 3.3m² 5,500won/month)

Attend the events and residency related programs of Hongti Art Center

Be present and work in the space more than 15 days a month

Benefits (Space and Equipments)

Individual art space and residential space

Collaborative art space & equipments

Exhibition space during residency

Benefits (Program)

Opening an expert invitation seminar; planner, reviewer and promotion for Artists in residence

Providing a round-table discussion & One-to-one mentoring program

Solo exhibition for Artists in residence

Domestic/International exchange residency program

Partial fund support for art work and regional research projects



Hong-ti Art Center
입주작가 릴레이전
제로아워

RESIDENCY EXHIBITION
ZERO HOUR



입주예술가 창작지원 사업

입주작가 릴레이전 <제로아워>

홍티아트센터 입주예술가로서 레지던시 기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전시합니다.

올해 전시 제목은 “제로아워(ZERO HOUR)”로서 행동을 개시하는 시간이자 잠재된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총 8명의 입주작가들의 잠재된 에너지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작품으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기획의 말

Zero는 우리말로 ‘영’이라 읽히며 이는 ‘없음’을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히 있음’을 상징합니다.

혹은 시작을 뜻하거나 상황의 종료를 알리는 숫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Zero(영, 0)는 숫자의 개념보다 철학적 의미로 존재합니다.

예술가들의 삶에서 혹은 작품에서 표현되는 중요한 찰나의 순간은 언제이며 그 순간 포착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공간과 낯선 사람들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각자의 생각과 고민들을 표현하는 2018년 홍티아트센터의 입주 예술가들의 릴레이 개인전에서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7개의 전시 8명의 예술가가 선보이는 각자 다른 순간의 제로아워에 우리의 답변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Matrics 3

변재규



형제섬

엄정원



따뜻하고 푸른물결

이향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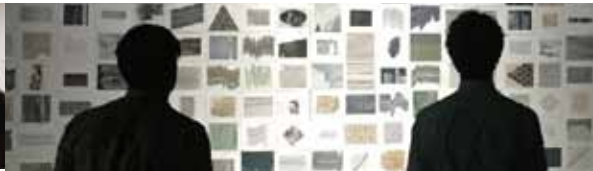
Boustrôphédon (부스트로페돈)

안 레비(Yann Lévy),
맷 코코(Matt Co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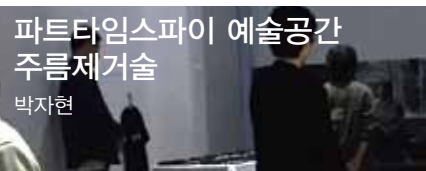
White Rainbow

김원진



파트타임스파이 예술공간 주름제거술

박자현



작은다윗

허찬미





Matrics 3

변재규 (영상·미디어, 설치)

2018. 5. 18 (금) ~ 6. 1 (금)

인간과 영화, 자연, 기계에 대한 영상 및 설치작업



형제섬

엄정원 (영상·미디어, 설치)

2018. 6. 7 (목) ~ 6. 22 (금)

형제섬을 비롯한 부산의 자연, 고가다리, 터널 등의 장소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행동적, 감정적 영향을 표현.



따뜻하고 푸른 물결

이향안 (사진, 설치)

2018. 6. 27 (수) ~ 7. 13 (금)

레지던시 기간 동안 부산의 풍경에 대한 리서치를 통한 영상, 사진 작업



Boustrophedon (부스트로페돈)

얀 레비(Yann Levy), 매트 코코(Matt Coco)

2018. 8. 8 (수) ~ 8. 24 (금)

부산의 일상적인 모습, 다대포 풍경, 봉수대 등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풍경을 바탕으로 영상, 사진 작업 제작



White Rainbow

김원진 (설치)

2018. 9. 14 (금) ~ 9. 28 (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각되고 변이하는 기억의 자취를 쫓고자 하는 다양한 실험의 결과물을 전시



파트타임스파이 예술공간 주름제거술

박자현 (회화, 설치)

2018. 10. 4 (목) ~ 10. 19 (금)

예술가로서의 존재와 정체성, 삶을 고민하고 해석해 나가는 작업



작은다윗

허찬미 (설치, 영상)

2018. 10. 4 (목) ~ 10. 19 (금)

작은 일상이 가지는 색과 결의 몸짓을 표현함으로써, 탈락한 일상성과 그 풍경의 자리를 복기하는 작업

Hong-ti Art Center
비평 프로그램

CRITIC PROGRAM

024

025



비평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늘 고민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합니다. 예술가 또한 개인의 삶과 작품에 대한 성찰을 끝없이 하는 데요. 그래서 조언과 비평을 통해 앞으로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주예술가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예술가에 대한 담론과 개인의 고민, 작품에 대한 조언까지 나누어 본 폭넓은 시간이었습니다.

2018. 6. 1 (금)

이행준 (필름 큐레이터, 영상작가)

변재규

2018. 6. 21 (목)

유원준 (더 미디어엄 대표, 앨리스온 디렉터)

엄정원

2018. 6. 28 (목)

최정윤 (독립큐레이터,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협력큐레이터)

이향안

2018. 8. 17 (금)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맷, 안

2018. 9. 28 (금)

유진상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비평가)

김원진

2018. 10. 5 (금)

강선주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사)

박자현

2018. 10. 18 (금)

최 선 (설치미술가, 비평가)

허찬미



강선주_박자현



유진상_김원진



최선_허찬미



양지윤_맷안



유원준_엄정원



최정윤_이향안

Hong-ti Art Center
아트부산특별전

ART BUSAN



아트부산 특별전시 ‘아트악센트’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트페어인 아트부산에 홍티아트센터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아트부산의 ‘아트악센트’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를 소개하는 특별전입니다. 여기에 홍티아트센터의 아카이빙 및 입주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미술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 4. 19 (목) ~ 4. 22 (일)

참여작가

김원진, 박자현, 엄정원, 이향안, 허찬미, 니콜라 싱, 벤 진스 호튼





Hong-ti Art Center
오픈스튜디오

OPEN STUDIO

오픈스튜디오 <복닥복닥>

2018. 11. 23 (금) ~ 2018. 11. 24 (토)

1년에 한번, 입주예술가의 작업실을 오픈하는 행사 오픈스튜디오는 올해 “복닥복닥” 이라는 컨셉으로 열렸습니다. ‘복닥복닥’은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수선스럽게 뒤끓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입주예술가는 관람자와 한층 더 가까워지고 관람자는 복닥복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구성

입주예술가 6인의 전시

오픈강의

퍼포먼스 [룸바카]

아트체험 프로그램 [아트토이 컬러링]

홍티아트센터 6기 입주예술가 _

김원진, 이향안, 엄정원, 변재규, 허찬미, 박자현



Hong-ti Art Center
오픈스튜디오
쿤바카

OPEN STUDIO



퍼포먼스 _ 콤바카

콤바카는 요가에서 무호흡의 순간이 본질적 자아와 가까워 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 순간들을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표현해 보았습니다.





Hong-ti Art Center
오픈스튜디오
아트투이 컬러링

OPEN STUDIO

아트체험 프로그램 _ 아트토이 컬러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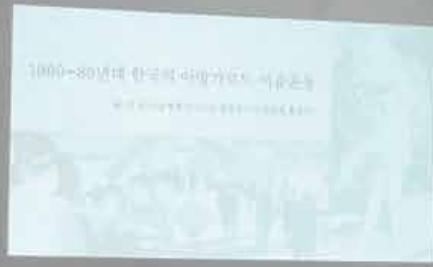
아트토이 컬러링은 입체 장난감에 그림을 그려 손쉽게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모습들, 나의 반려동물, 좋아하는 대상을 관찰하고 그려넣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입체적인 캐릭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Hong-ti Art Center
오픈스튜디오
오픈강의

OPEN LECTURE



오픈강의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시민들이 예술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홍티아트센터는 매년 오픈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픈스튜디오 “복닥복닥” 과 함께 현대미술에 대한 강의를 열었습니다.

오픈강의 I

[한국 현대미술과 단색화]

2018. 11. 23 (금)

윤진섭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호주 웨스턴시드니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2015 부산비엔날레 학술위원장
2014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는 그 파도를 맞이하기 위해 바짝 긴장하죠. 이 파도란 놈이 어찌나 거칠고 센 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올 때쯤이면 우리는 지난 간 파도를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지나간 파도는 이미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은 파도와 부딪힐 때입죠. 왜냐구요? 지나간 파도는 죽은 것이지만,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파도야말로 지금 내가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살아 있는 놈이기 때문이죠.”

—Jonathan Funk 著,
〈한 어부의 이야기〉중에서—

오픈강의 II

[현대미술과 비미술적 재료의 활용]

2018. 11. 24 (토)

임근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이론 석사
2010 ~ 2013 홍익대학교 메타디자인 BK21 연구원
2006 ~ 2007 아트인컬처 편집위원
2005 ~ 2006 아트인컬처 편집장



“왜 현대 미술가들은 비미술적 재료를 활용하며 기성 미술의 범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까요? 돌이켜 보면, 비미술적 재료의 사용과 미적 미디어의 재창안은 1910년대 이후 현대미술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970-80년대에 시각 미디어를 재매개하는 컴퓨팅 환경, 즉 멀티미디어 체제가 등장한 이후 뉴미디어 아트만 새로운 존재가 됐을까요? 놀랍게도, 구식 미디어를 사용하는 미술은 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회화와 조각은, 선고된 상징적 죽음을 통해 거꾸로 되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현대미술이 과거의 실험성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미디어/미디어의 차원에서 어떤 형태/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 무엇이 진짜 내일의 현대미술일까요? 이 강의는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미완의 답을 제시합니다.”

Hong-ti Art Center
교류사업

INTERCHANGE OF
CREATIVE SPACE

036

037



국내 교류

흥티아트센터 X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시 1차

흥티아트센터와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시의 입주예술가 간의 포트폴리오 교류를 통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확대를 하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로의 작업 및 작품 소개를 통해 지역 예술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일 시 : 2018. 7. 17 (화)

장 소 : 흥티아트센터

교류기관 :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레지던시



홍티아트센터 X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시 2차

홍티아트센터와 교류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창작 공간 관계자 및 작가들과 함께 광주 일대로 아트투어를 떠났습니다.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시의 오픈스튜디오, 홀로그램 극장 및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 소재 레지던시 투어를 통해 예술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 시 : 2018. 9. 11 (화) ~ 12 (수)

장 소 : 광주 미디어아트레지던시, 광주비엔날레, 이화갤러리, 대인시장

참여기관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모하창작스튜디오

038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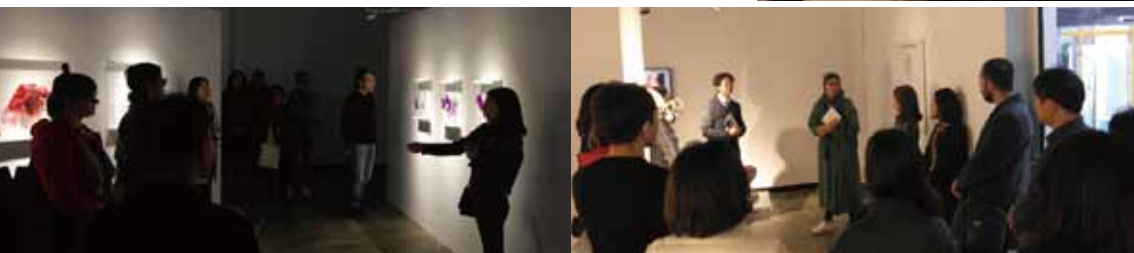
홍티아트센터 X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교류전 “백”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교류 전시는 ‘백’이라는 제목으로, ‘백’은 색깔이 가지는 하얀색의 순수함과 가득 찬 숫자를 의미하는 100,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이며 조력자 역할을 하는 레지던시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시각·설치미술을 기반으로 하는 홍티아트센터의 입주예술가와 도자(흙)를 바탕으로 작업하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입주예술가들이 함께 하는 전시를 통해 서로의 작업에 대해 주고 받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 시 : 2018. 11. 9 (금) ~ 2018. 11. 24 (토)

전시장소 : 홍티아트센터



부산·울산·경남 창작공간 통합 전시 “Neo-Localism”

창원 컨벤션센터 CECO에서 홍티아트센터,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모하창작스튜디오, 경남 예술창작센터의 통합 교류 전시가 열렸습니다. 총 23명의 작가가 보여주는 새로운 로컬리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 시 : 2018. 12. 5 (수) ~ 9 (일)



국제 교류

영국, 게이츠헤드

발틱 현대미술센터는, 영국, 게이츠헤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분공장이 현대미술관으로 재탄생 된 곳입니다. 올해는 1월부터 4월 홍티아트센터의 3기 입주예술가 갈유라 작가와 5기인 김동찬 작가를 파견하였고, 발틱현대미술센터에서는 Ben Jeans Houghton 과 Nicola Singh 작가가 선정되어 홍티아트센터에서 창작활동을 하였습니다.

교류기관 : 발틱 현대미술센터

교류기간 : 2018. 1 ~ 2018. 4



〈참여작가들의 수기〉

니콜라 싱 (Nicola Singh)

레지던시에 머무는 동안 나는 영국에서 있을 두 개의 전시와 더불어 홍티아트센터에서의 개인전 그리고 아트부산 전시를 준비했다. 나는 또한 화상 통화를 통해 영국에 있는 예술학교 학생들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했다. 나는 홍티아트센터에서 내가 이런 모든 것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홍티아트센터에 머무는 동안 내가 진행한 작업은 한국 문화의 세심함이었다.

나는 내가 활용가능한 한국의 재료들을 다루고 익히면서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주로 한지와 염료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나는 다른 종이들을 찾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나는 또한 나의 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홍티아트센터에서 워크숍을 계획하여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초청하였다.

나영은 재료 및 다과 등을 준비하고 워크숍을 위해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이 전 과정을 위해 매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워크숍에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나는 부산에서 보내는 많은 시간 중 나에게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매우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워크숍의 분위기는 모든 것을 매우 평온하게 만들었다.

나는 워크숍에서의 몇몇 작품들은 홍티에서의 개인전에 전시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홍티아트센터에서 머무는 동안 지역 커뮤니티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다. 나영은 나에게 매주 하는 바느질공예 수업과 조향수업을 알려 주었다. 나는 바느질 수업 3번과 조향수업 1번을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다양한 언어들 사용되는 그룹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생각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나에게 이런 수업을 알려준 나영에게 매우 감사한다.

내가 부산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나는 운 좋게도 서울과 제주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한국의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이고 나는 언젠가는 돌아오고 싶다.

나는 홍티아트센터에서 나의 시간에 대해 매우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몇몇 매우 특별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한국 문화로부터 좋은 시간을 경험하였다.

042

043



벤 진스 호턴 (Ben Jeans Houghton)

홍티아트센터에서 지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다.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스튜디오는 1층에 있고 숙소는 2층 위에 있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이 자유로움은 내가 늦은 밤이나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영감을 받았다고 느낄 때, 나는 몇 분 안에 나의 스튜디오에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홍티아트센터는 부산의 중심부와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지역의 중심지는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다. 부산의 중심부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 한 시간 거리에 있지만 나는 홍티아트센터는 다대포 바다로 향하는 해변가가 있어 나의 작업을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곳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해변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혼자 혹은 가족

이나 사람들이 무당에 의해 공연되는 작은 곳을 볼 수 있었다. 각각의 것들이 항상 달랐고, 의식을 위한 악기의 소리와 행위도 훌륭했지만, 나는 그들이 무엇을 위한 곳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언어를 뛰어넘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홍티아트센터의 주위의 환경에도 무언가 에너지가 있었다. 이곳은 산업단지라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를 정말로 흥미롭게 하는 것이 많았다.

홍티아트센터의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예술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를 소개시켜 주고, 우리가 풍부하고 흥미로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일본, 후쿠오카

교류기관 : 큐슈 예문관(후쿠오카현 치쿠고시)

교류기간 : 2018. 1 ~ 2018. 3

044

045



사진출처: <http://www.kyushu-geibun.jp/main/2.html>

큐슈 예문관은 '공원 속의 역'으로서 큐슈 신칸센 치쿠 船小屋 역 앞에 정비 된 시설입니다.

문화 예술 관련 단체와 마을 만들기 단체 등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예술 문화·체험·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큐슈 예문관에서 작가가 선발되어 창작활동을 하였고, 올해에는 6기 입주예술가인 변재규 작가가 예문관 레지던시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작가들의 수기〉

변재규

우선 본인의 작업에 미친 영향이라고 생각하자면, 현대 예술의 다매체적 성격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레지던시의 경험은 본인이 기존에 해왔던 전시 내용과 형식을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인적 차원에서는 작가와 비평가, 연구자, 관객사이의 이해를 도모하는 자리로서 영상예술에 대한 연구와 제작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활의 면에서 문화적으로 가까우면서 먼 일본을 현지의 장기 체제를 통해 멀리서 미처 보지 못한 일본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문화의 사람도 그다지 다르지 않구나 하는점과 표현양식이 문화의 차이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보여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보편적 인간성, 인간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만, 가오슝

교류기관 : The Pier-2 Art Center

교류기간 : 2018. 7 ~ 2018. 12

046

047



사진출처: <http://pier-2.khcc.gov.tw/eng/home01.aspx?ID=1>

Pier-2는 산업구조가 바뀌며 버려졌던 창고가 예술가 그룹들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곳입니다.

부두에 위치해 홍티아트센터와도 비슷한 점이 많은 이곳은, 예술가 클러스터로 변모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작품과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을 보기 위해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9월에 피어-2의 Hui-Lin Chuang 작가가 홍티아트센터에 입주했고, 10월~12월에 홍티아트센터의 6기 김원진 입주 예술가가 피어-2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였습니다.

〈참여작가들의 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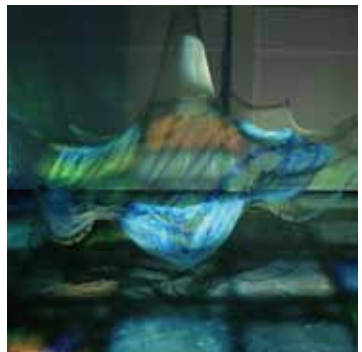
Hui-Lin CHUANG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시 예술가들과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양지운 큐레이터의 강의를 들었다.

김해 국립박물관, 모카미술관(부산현대미술관), 경남미술관, F1963을 방문하여 관람하였다. 그리고 또따또가에 방문하여 부산에서 활동하고있는 예술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 전시를 8월30일 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하였다. 우리 주변에 물건들의 우연한 만남을 말하는 주제로 “Ending, Just Another Beginning.” 전시를 개최하였다. 전시에는 4개의 설치미술품을 전시하였다. 창조된 형태의 접근을 질서와 무질서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인공적인 물체와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지역의 교환 레지던시 프로젝트는 나의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생각의 일부를 바꾸게 해주었다. 홍티아트센터의 주변에 산업 지역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노동자, 어부, 홍티마을 주민들과 접촉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그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Hong-ti Art Center
커뮤니티사업

COMMUNITY



커뮤니티 사업

홍티아트센터는 지역커뮤니티와 함께 예술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포의 무지개 공단 안의 근로자와, 다대동 주민들, 홍티아트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의 안식처가 되고자 홍티예품, 예술산책과 더불어 공간활성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티예품은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19회차 진행을 하였고, **홍티예술산책 프로그램**을 통해 사하구 지역의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단 근로자들에게 업무 심포를 제공한 **공간활성화 프로그램(홍다방, 홍집, 홍책방)**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ong-ti Art Center
홍티예품

COMMUNITY

050

051



홍티예품

홍티로 떠나는 예술 나들이

홍티아트센터는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창의적인 문화 예술콘텐츠를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홍티예품'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상반기(4~6월), 하반기(8~11월)에 걸쳐 총 19회차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지금, 여기, 우리] 2018년 4월 ~ 6월 (총8회)

하반기

[한땀한땀] 1차 2018년 8월 21일 ~ 9월 9일 (총5회)

[위대한 낙서_몸과 정신에 집중하기] 2차 2018년 10월 27일 ~ 11월 15일 (총 6회)

Hong-ti Art Center
홍티예풍 상반기
지금, 여기, 우리

COMMUNITY

052

053



홍티예품 상반기

[지금, 여기, 우리] 2018년 4월 ~ 6월(총 8회)

우리가 쉽게 지나친 것들

길을 걷거나 생각할 때, 심지어 쉬는 일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더욱 굳센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은 주변을 감상하는 일입니다.

그대로의 자연을 품다 _ 힐링소품

강사 : 박혜미(프로젝트케미바), 이승수

기간 : 4. 26 (목) ~ 5. 3 (목) (2회차)

시간을 담은 공간 _ 공간연출

강사: 박혜미(프로젝트케미바), 이승수

기간: 5. 13 (일) ~ 5. 20 (일) (2회차)

놓쳐버린 순간에 대하여 _ 셀프촬영

강사: 백종욱(언니네 사진관), 박혜미 (프로젝트케미바)

기간: 5. 27 (일) ~ 6. 3 (일) (2회차)



Hong-ti Art Center
홍티예풍 상반기
우리동네, 담다

COMMUNITY

054

055



우리동네, 담다

눈에 담기만 했던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풍경, 직접 그려보고 에코백에 담아보는 시간입니다. 제주도에서 <제주 종이 가게>를 운영하는 고유리, 배종열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담기.

강사 : 고유리, 배종열 (제주종이가게)

기간 : 6. 9 (토) ~ 6. 10 (일) (2회차)



Hong-ti Art Center
홍티예품 하반기
한땀 한땀

COMMUNITY

056

057



흥티예품 하반기 1차

[한땀한땀] 2018년 8월 21일 ~ 9월 9일 (총 5회)

마이 컬러풀 데이

〈마이 컬러풀 데이〉는 새벽이라는 시간에 느끼는 감정에 대한 작가의 작업에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루의 시간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의 색을 중심으로 나의 하루를 표현해보고, 그 색깔 위에 바느질과 드로잉 작업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한층 더해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강사 : 천은혜, 이영지 (부산활동작가)

기간 : 8. 21(화) ~ 8. 28(화) (총 3회차)



Hong-ti Art Center
홍티예품 하반기
펼치거나 돌이거나

COMMUNITY

돌이거나 돌이거나

〈돌이거나 돌이거나〉는 돌(Stone)과 인형(doll)의 동음이의어를 가리키는 말로 돌을 쌓아올리고 원하는 바를 빌던 거석문화와, 인형을 만들어 걱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술적 표현에서 시작된 ‘이응과 공녀들’ 작가의 작업에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의 걱정과 고민을 글로 적은 후, 문자언어를 시각언어로 변형시켜 각자의 고민이 담긴 걱정 인형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강사 : 이응과 공녀들 (이은지, 이재현, 신화정 (부산활동작가)

기간 : 9. 8 (토) ~ 9. 9 (일) (총 2회차)





Hong-ti Art Center

홍티예술평 하반기

몸과 정신에 집중하기

COMMUNITY

흥티예품 하반기 2차 [위대한 낙서_몸과 정신에 집중하기] 2018년 10월 27일 ~ 11월 15일 (총 6회)

몸에 집중하기 : 마음 돋보기

〈마음 돋보기〉에서 다루는 드로잉들은 각자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과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여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기존의 붓이 아닌 나 자신이 붓이 되어 자신의 마음과 손짓으로 드로잉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강사 : 허찬미 (흥티아트센터 6기 입주예술가)

기간 : 10. 27 (토) ~ 11. 3 (토) (총 2회차)



정신에 집중하기 : 젠탱글 아트

젠탱글 아트란 '젠(zen:선)'과 '탱글(tangle: 얽히다)'의 합성어로, 선이 서로 얽혀 이뤄진 모양의 패턴을 그리는 낙서를 말합니다. 반복적인 패턴을 그리면서 편안한 집중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젠탱글 아트를 통해 명상의 시간을 가지며 작품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강사 : 박영미 (부산활동작가)

기간 : 11. 6 (화) ~ 11. 15 (목) (총 4회차)



Hong-ti Art Center
홍티예술산책

COMMUNITY

062

063



홍티예술산책

홍티로 떠나는 예술 나들이

홍티예술산책은 홍티아트센터에 발걸음 해주시는 시민 및 학생들이 조각공원을 산책하며 작품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컬러링북을 색칠하고 설치미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시기간에 방문하지 못한 일반시민 및 학생들을 위해 홍티아트센터를 알아갈 수 있는 아카이빙자료, 컬러링북 등이 홍티아트센터 입구 및 세미나실에 상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로체험활동

홍티아트센터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홍티조각공원을 산책하며 본 조각들을 보고 색칠하며 귀로는 홍티아트센터가 하는 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올해는 사하구 지역 5개의 중학교와 어린이 기자단 BGV(6회)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홍익아트센터 문화공간



남만충전 홍다방

위치 : 홍익문화공간
운영시간 : 월~금, 12:00~13:00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파워충전 홍집

위치 : 홍익아트센터 1층 로비, 공동작업장
운영시간 : 월~금, 12:00~13:00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용가능, 전시입장에 따라 변동 가능



지식충전 홍책방

위치 : 홍익아트센터 1층 로비
운영시간 : 월~금, 12:00~13:00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용가능



Hong-ti Art Center
홍티문화공간

CULTURAL SPACE



달리는 부산 X 흥다방

이동형 무대 지원 사업 '달리는 부산'이 흥티아트센터로 달려 왔습니다.

흥티아트센터의 '흥다방'과 함께 주민들에게 휴식과 커피 한 모금을 선사했습니다.



Hong-ti Art Center
홍 커밍데이

HONG COMING DAY

068

069



홍티아트센터 개관 5주년 네트워크 파티

[홍커밍데이, Hong Coming Day]

홍커밍데이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작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홍티아트센터의 다섯 살을 축하하며 처음으로 1~6기의 입주예술가들을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를 잇고 함께 허심탄화한 이야기를 나누며 2018년 에게 따뜻한 작별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 시 : 2018년 12월 20일 (목)

대 상 :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프로그램구성

오프닝파티

지역작가교류전 '걸거나, 매거나, 감거나' 오프닝

작가 대담

옥인컬렉티브(진시우, 이정민)와의 대화

홍티 '어서 옥션'

작가의 작품, 소장품, 재료등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 교환, 사고파는 이벤트

네트워크 파티

Hong-ti Art Center
홍 커밍데이

HONG COMING DAY



전시 “걸거나, 매거나, 감거나”

홍커밍데이는 지역 작가 교류전 ‘걸거나, 매거나, 감거나’의 오프닝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전시의 제목 ‘걸거나, 매거나, 감거나’는 서로 다른 두 끈을 묶기도 하고 잘 풀리게도 만드는 매듭의 특성을 빚댄 것으로 홍티아트센터의 입주작가 4명과 지역 작가 4명의 1:1 매칭 전시입니다.

참여작가 : 김수정-허찬미, 임봉호-노수인, 이재은-신지혜, 문지영-감민경
큐레이터 : 이봉미(영주맨션 기획자)



작가대담

올해의 작가상을 수여한 옥인콜렉티브(진시우, 이정민)이 출연하여 지역작가로서의 고민과 작가의 협업과정 등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티 ‘어서 옥션’

작가들에게 필요한 물품, 소장품 등을 경매 방식을 통해 나누는 행사 홍티아트센터 4기 입주 예술가이자, 모하창작스튜디오의 운영담당자이신 김영현(STUDIO1750)작가의 진행으로 작가의 소장품, 작품부터 다양한 미술재료까지 서로 주고받고 파는 마켓이 열렸습니다



Hong-ti Art Center
옥인컬렉티브

TALK



옥인컬렉티브

(이정민, 진시우)와 대화 중 기록

이정민: 간단하게 먼저 옥인컬렉티브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옥인컬렉티브로 활동한지는 10년 정도 되었구요, 저희가 옥인컬렉티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종로구에 위치한 옥인아파트에서 부터였어요. [...]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들, 작가로써의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 어떤 행사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한 장소에서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인왕산 사생대회'와 같이 사생대회를 한다거나, '옥인동의 불꽃', '옥인 오픈 사이트' 등등. 그렇게 해서 옥인컬렉티브라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정민: [...] 사실 작업을 만든다는 것이 무언가를 가치화시키고 그걸 시각화 시킨다는 것은 대상화가 분명히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작가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테면 올해 저희는 2년 전에 인천으로 작업실을 옮겼는데요, 인천 작업실의 위치가 너무 흥미로워서 작업실을 옮기고 더 많은 인천작가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천 작가들과 함께 회전 예술이라는 그룹과 함께 '회전을 찾아서, 또는 그 반대'라는 영상작업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들이 물론 동의를 했지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영상 작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거죠.

고민은 사실 뗄 수 없는 것 같고, 저희는 그냥 협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희 스스로 협상하는 거죠.

Q. 협업에 참여하는 작가분들은 작가로써의 협업의 과정과, 또 작가 개인으로서의 작업과 같이 가시는지, 아니면 따로 가시는지?

진시우: [...] 작가그룹이라는 형태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러면 이전에 혼자 있을 때 했던 모든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당연히 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애초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엔 항상 어마 어마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를 몰랐던거죠.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가 누구에게 일을 부여해서 그 부여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낼 것인가 그 안에서 일을 찾아야함과 그 찾아낸 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는 고민을 스스로 해야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생긴거죠. [...]

이정민: [...] 최근에 몇 년간은 둘 다 개인 작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 재밌었던 건 옥인컬렉티브라는 하나의 또 다른 가상의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방송국을 운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처럼 한명의 가상의 캐릭터가 있다는 건 거리두기가 편한 거예요.

어떤 한 작가의 작업의 흐름 안에서 하기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자유롭게 못하게 만들 때 어떤 가상의 캐릭터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재밌는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젊은 작가들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진시우 : [...]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질문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을 뻔히 잘 아시면서도 항상 물어보셔요. 그래서 저희가 답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맞다. 그 자연스러움이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

Q. 처음부터 세분이 시작하신 건가요?

이정민 : 처음에 한 3개월 정도에 옥인오픈 사이트는 각자 작업을 보여줬기 때문에 옥인아파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에 더 가까웠는데 6-7개월 쯤 되었을 때 옥인아파트 프로젝트와 옥인콜렉티브라는 이름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서 쓰이다가 옥인 콜렉티브로 더 활동을 하자라고 얘기하면서는 자연스럽게 ‘나는 하겠다.’, ‘안하겠다.’로 나뉘어 졌어요. 그 때 콜렉티브라는 이름을 그때만 해도 부담스러워 하는 작가들도 많았어요.

단체, 집단이라는 이름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못하게 되는 분들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는 세 명이 남고, 다른 협업자들과 같이 프로젝트마다 활동을 하게 되는 형식이 결정이 됐죠.

Q. 멤버들을 잘 이끌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민 : [...] 늘 누군기랑 같이 얘기하거나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런 성향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거 하나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개개인의 공간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리가 필요하고, 그게 목적화 되면 안 되고, 시간을 더 길게 가져보아야 된다는 거. [...] 그 작업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에 어떤 절실함 같은 게 저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고, 이 일이 일어나는 이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또 나누고 싶고, 앞으로도 해나갈게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시우 :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든지 해 볼만 한 일인 거 같긴 해요.

지금의 옥인콜렉티브 또는 다른 작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옥인콜렉티브의 것이 저의 개인 작업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잘 해나가야겠다고 생각 했어요.

그것은 어느 것도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두 개의 모든 것로부터 잠식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옥인콜렉티브 라는 것이 저를 잠식하는 것. 제 작업을 잠식시키는 것.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악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만 않는다면 마음이 맞는 동료들을 찾아서 그들과 같은 일을 벌이는 것은 해 볼만 한 것 같아요.

후기 _ 2018년 6기 입주예술가

김원진

올해는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로 작업하면서, 부산과 대만에서 홍티의 따듯한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그 덕분에 보다 집중하여 그동안의 작업들을 발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홍티의 좋은 공간과 그 안에서 구성되는 흥미로운 전시와 실험들이 앞으로 부산시민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향안

올 상반기 홍티아트센터에서 작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부산 지역 내 타기관이나 다른 지역 내, 해외까지 섭렵하며 여러 예술단체와의 교류도 많았으며 센터 내 시설도 훌륭해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특히 문화재단 임직원분들과 센터 내 담당자 선생님들 모두가 작가들이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성심성익껏 도와주셨고,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쓰시는 걸 항상 느낄 수 있었기에 정말 감사드린다.

허찬미

홍티아트센터 앞에는 나의 키만 한 잡초가 있다. 그 잡초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을 따라 슬레이트에 작은 흠집을 내는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을 살아내는 그들을 보며 내가 움직이는 이 몸짓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발끝에 차이는 이파리 정도로 생각했던 얇은 풀 덩어리는 때로는 내 키가 되기도 하고 어찌면 하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반성과 작은 파동의 경험을 하게 해준 홍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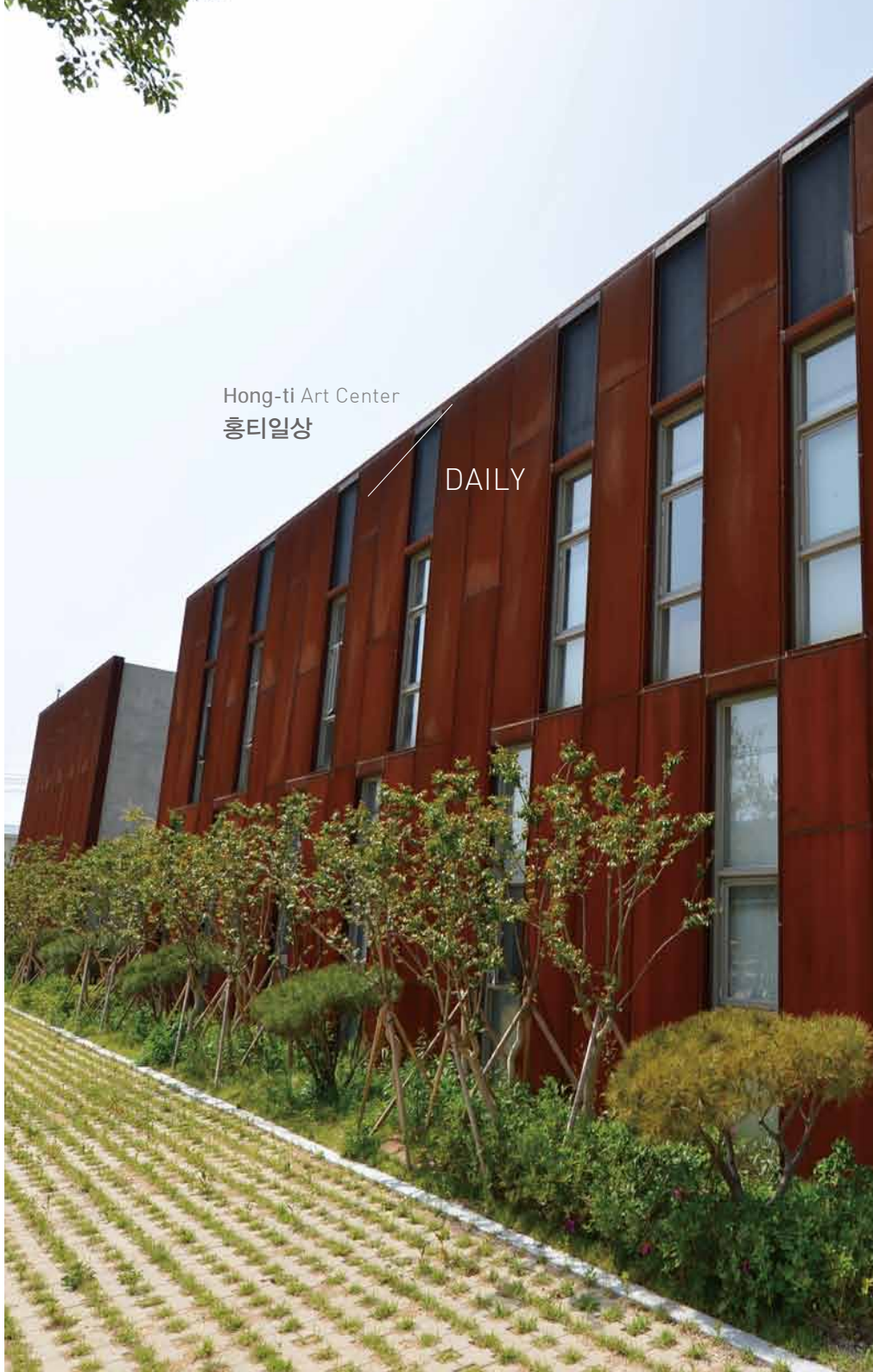
박자현

조용하게 작업하기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노을을 보며 산책하던 것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 점심때쯤 홍티에 탁구치시러 오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좋았어요. 홍티아트센터는 공단사람들과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곳인 것 같아 좋아요.

Hong-ti Art Center
홍티일상

DAILY



흥티일상



흥티 _ 공단사람들

흥티 _ 흥 많은 학생들

















Hong-Ti Art Center ANNUAL REPORT 2018

홍티아트센터 2018 연차보고서

발행인	Publisher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일	Publication	2018. 12.
기획	Curator	문화공간팀 김두진, 최윤진, 임재환, 정나영, 김동연, 김혜진
디자인	Catalogue Design	vogodesign



49489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106번길 6

T. 051.263.8661~3 F. 051.263.8660

H. www.bscaf.or.kr FB. www.facebook.com/Hongtiartcenter I. @hongtiartcenter

© 본 도록의 모든 권리는 부산문화재단에 있으며, 사전동의 없이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pyright Copyright Conerning to Busan Cultural Foundation,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Busan Cultural Foundation.